

2008년 11월 24일 (월) 15:49 [뉴스시스](#)

서울문화재단, 서울지역 문화예술 지원전담...182억 규모

【서울=뉴스시스】

[서울문화재단](#)의 2009년 예술지원사업의 큰 틀이 조금 바뀌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분담하던 서울에서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모두 서울문화재단이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9월3일 발표한 '새 정부 주요 예술정책'과 예술계 단체·시민들의 요구 등에 따른 해답이다. 대내외적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원사업 규모를 182억원으로 확대한다. 서울문화재단의 예술 지원사업 예산 70억원에 문화예술위에서 위임받은 56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 56억원 등이 보태졌다.

지원 수혜단체도 700개에서 900개로 늘린다. 선택과 집중 지원 강화로 1개 예술단체의 수혜 지원 최대금액을 2억5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시민 예술활동 지원도 활성화 한다.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자비로 활동하는 아마추어 시민 동아리, 실버동호회 지원을 늘린다. 저소득층 등의 예술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문화재단 안호상(49) 대표는 24일 "특정 인, 단체, 계층에만 지원이 집중돼 온 것이 사실이다. 지원금이 국민 세금으로 확충된 만큼 그동안 예술가들에게만 집중된 지원이 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며 "시민들이 단순히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화 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직접 참여 또는 주최 사업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 등지에 5개 창작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남산창작센터'는 뮤지컬, 오페라 등 대형 공연예술 연습 공간, '대학로 연습실'은 연극, 무용 등 중소 규모 공연 예술 연습실, '청계창작스튜디오'는 시각 예술 창작활동과 전시 지원 공간, '서울열린 극장 창동', '대학로 서울연극센터'는 공연과 관객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한다.

안 대표는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예술적 감수성을 불어넣어 궁극적으로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기자 benoit051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